

# 아스피린, 식도암 예방효과 상당

이부프로펜 포함 NSAID가 위-식도 역류 막아 ... 식도암 발전 못하게

아스피린이 식도암을 예방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미국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의 패트리셔 갈리포 박사는 과학전문지 공중과학도서관-의학(PLoS Medicine)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논문에서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등 비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NSAID)가 위-식도 역류로 발생하는 바렛식도(Barrett's esophagus)가 식도암으로 발전하지 못하게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고 메디컬뉴스 투데이가 3월1일 보도했다.

또 바렛식도가 식도암으로 진전될 위험을 크게 증가시키는 유전자 이상인 4가지 생물표지(biomarker)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갈리포 박사는 바렛식도 환자 243명(남성 189명에 여성 54명으로 평균연령 62세)을 대상으로 10년에 걸쳐 실시한 조사분석 결과, 조사시작 당시 4가지 생물표지 중 3가지 이상을 지닌 환자가 10년 이내에 식도암으로 발전할 위험은 NSAID 복용자가 30%, 비복용자가 79%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NSAID 복용 여부와 상관 없이 4가지 생물표지가 없는 사람과 3가지 이상을 가진 사람은 10년 이내에 식도암 발생률이 12%와 80%로 크게 차이가 났다.

NSAID의 효과는 만성염증을 차단하고 종양에 영양을 공급하는 혈관의 성장과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바렛식도는 먹은 음식이 위로부터 식도로 역류해 올라와 식도에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증세인 가슴쓰림(heartburn)에 의해 주로 발생한다.

전문의들은 대개 붉은 핑크색을 띠어야 정상인 식도의 내막상피가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면 바렛식도로 의심한다.

내시경 검사로 알 수 있으며 식도의 내막상피를 조금 떼어내 조직검사를 하면 보다 정확한 진단을 내릴 수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07/03/06>